

서울 서촌(西村) 역사문화탐방로 조성방안 연구

- 인왕산록과 백운동천 수계(白雲洞川 水系) 지역을 중심으로 -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Making a Historic Cultural Walk of Old West Village, Seoul with the Case Study Area around Mt. Inwang and Baegundong Stream

Kim, Han-Ba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direction of this study lies in exploring a schematic proposal for a historical walk over an area called 'West Village' located inside the old city wall of Seoul. The case study area is comparable to the historic 'North Village,' including historical assets such as the Kyunghi Royal Palace and Sajik-dan. Moreover, it has spectacular scenic spots surrounding Mt. Inwang and Baegundong Stream, although this has now been paved over for use as a road. This village maintained its fame as a hub of art through the early 20th century.

The comprehensive approach of this study ranges from the historical and cultural to the ecological and visua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themed walk would commemorate the great leader of national independence, Baegbeom Kim Ku, as well as the famous Korean style realistic landscape painting school under the leadership of Kyumjae Jeong Seon, a great artist of the Josun Dynasty. In addition, a scenic streamside walk would accentuate the surrounding panoramic vistas which were drawn by Kyumjae, while at the same time allowing the ecological system of Baegundong Stream to be uncovered and restored.

Key Words: Historical Walk, Scenic Walk, Realistic Landscape Painting, Kyumjae Jeong Seon, Baegbeom Kim Ku

1. 서론

1. 배경과 목적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역사탐방로의 조성이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성곽 내부

원도심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서울시, 1994), 그 중 '덕수궁길'과 '돈화문길' 등 일부 구간이 시범적으로 조성되어 좋은 반응을 얻어 왔다. 최근 발표된 광화문 앞 보행광로 조성사업계획 등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도 역사환경의 보전, 복원을 보행 환경의 개선과 결합하는 방식의 사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의 역사탐방로 계획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Corresponding author: Han-Bai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82-2-2210-5620, E-mail: hbkim@uos.ac.kr

되었다.¹⁾

특히, 서울과 같이 풍수원리에 의해 입지되고 조성된 도시는 동시에 물줄기에 따라 옛길과 마을들이 형성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문화가 성립되어 갔다. 이 물줄기들 중 특히 상류의 계류들은 산자락의 경승지와 결합됨으로써 여가생활과 지역문화의 모태가 되는 등 지형경관과 역사문화의 양대 측면에서 지역환경의 뼈대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왕산의 동측 산록과 그로부터 흘러내리던 백운동천을 포함하는 소위 '서촌(西村)'이라 불려 왔던 구도심의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생태, 경관과 생활문화가 함께 하는 역사탐방로의 조성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2. 대상지 개요와 연구방법

대상지는 현재 종로구 서북측 일원의 지역으로 현행 도시계획으로 보아서는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동시에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원칙적으로는 4층 이하의 주거용, 근린상가 건축물에 건축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회궁과 사직단 등 국가급 문화재가 인접한 대상지 곳곳에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고층 고밀 개발로 야기될 수 있는 역사환경 및 조망 경관 훼손에 대비한 계획적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본 연구의 2차적 목적은 이와 같은 경관 훼손에 대비하여 본 대상지의 역사 경관 자원의 보전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역사탐방로 연구와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새로운 대상영역의 발굴이다. 기존의 역사탐방로 계획이 주로 서울 성곽 내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정작 탐방로 계획의 주 대상지는 주로 북촌에서 남촌에 이르는 도성의 중심부였었고, 도성의 서측과 동측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었다. 본 연구는 이 점에서 그간 역사 환경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도성 서북부 인왕산 밑의 지역으로 경복궁과 사직단을 포함하는 소위 서촌(西村)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다루려 한다.

둘째, 방법상으로는 기존의 역사탐방로 계획의 관점을 확장 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역사탐방로 계획들(앞 책)이 주로 대상지역의 개별 역사 자원들을 조사·분석하여 주제별로 분류하고 이들을 보행 중심 가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면 여기서의 접근방법은 역사 자원의 고려 이외에 도시가로 환경 설계의 기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조망 등의 경관자원과 물과 녹지 등의 환경자원을 함께 다루는 종합적 접근이 취하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역사탐방로 계획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역사탐방로의 새로운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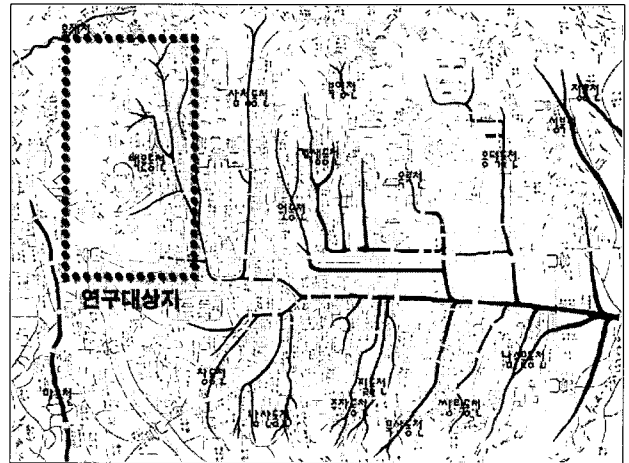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자료: Royal Asiatic Society, 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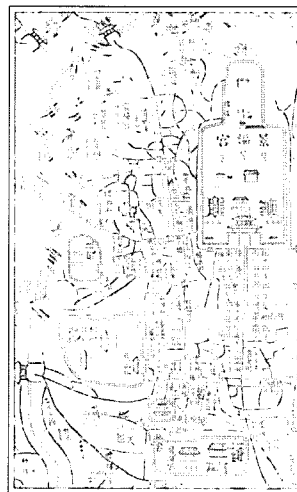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지
자료: Royal Asiatic Society, 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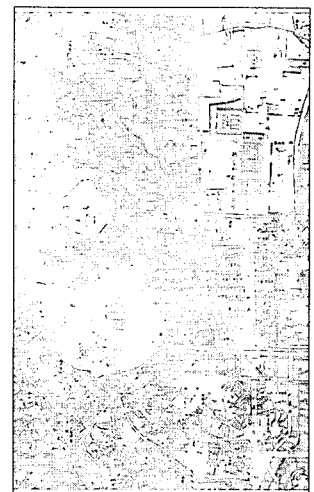


그림 3. 대상지
자료: 조선총독부,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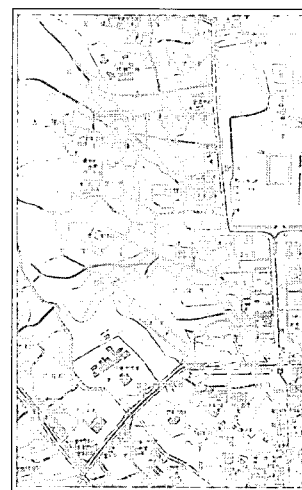


그림 4. 대상지
자료: 조선총독부, 1934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도출

1. 선행사업과 연구

1) 선행사업들

본 주제와 관련된 서울과 일부 지방도시의 선행사업들은 크게 '걷고 싶은 거리사업(1998~2001)'과 그 관련사업들인 '역사 탐방로 사업'과 '도시 하천 복원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근 십년여의 기간 사이에 추진되었던 이들 사업은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1994)'이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전, 복원사업의 의도로 시행되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라는 시민운동의 소산이기도 하다. 양대 사업 모두 보차공존도로 개념으로 추진되었으며 제한적으로 보행 친화형 환경으로 조성되었다.

2) 선행 연구들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소수의 일반논문과 석사학위논문(정명진, 1994), 다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들이 있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의 연구용역(1994)을 통하여 서울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탐방로 계획안을 성안한 바 있다. 이는 그보다 앞선 '서울도심부관리계획(1994, 2003, 2004)'의 역사환경 보전부분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며, 그 중 일부가 후일 실현되었다. 관련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대표적 연구들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기본방향 설정에 직접적으로 참고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고, 이 밖의 참고문헌들은 미주에 밝혀 두었다.²⁾

(1) 역사문화 탐방로 계획(서울시, 1994, 12)

구도심내 역사문화 자원을 조사·도화한 후 이들을 주제별 탐방로와 구역별 탐방로로 나누어 계획하였고, 실현단계에 있어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2) 조망가로 조성사업 계획(서울시, 1998)

연구결과로서 시범 조망가로로는 1순위가 세종로, 2순위가 사직로, 3순위가 추사로(현 자하문로)로 선정되어 본 논문의 연구대상지의 가로가 2위, 3위로 선정되어 그 자원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고 있음.

(3) 도쿄 에도가와구 환경친화적인 도시 및 공원녹지조성 워크샵(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코플랜연구소, 2006)

공업화에 밀려 복개되었던 세류 지천들을 친수 녹도로 복원하는 사업경험을 소개하고 있음.

2. 연구의 기본방향

본 연구는 선행 연구사례 중 특히, 위 (1), (2), (3)의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즉, 기존 역사 탐방로 자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산경과 수경 등 역사적 자연경관 자체와 그를 향한 조망구조,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문화예술 활동들을 탐방자원으로 포함하려 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역사탐방로와 조망가로, 친수녹도가 결합된 복합적 형태의 주제 가로를 제시하려 한다. 분석의 자료는 대략 고지도와 고문헌, 일부 근대 사료들과 사진들, 이에 더하여 이 지역에서 일어난 독자적 문화조류였던 진경산수와 위향문학 관련 사료들을 포함하려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울은 풍수에 의해 입지되고 조성된 도시로, 도시의 역사경관에는 인위적 건조물만이 아니라 풍수 지리에 의해 선택되었던 산과 천,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조망점 등도 탐방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의 보전과 복원, 활용이 당연히 계획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대상지의 산수의 경관은 조선조 서울에서도 이름난 승경으로 당시 시문학과 회화의 활동 근거지인 동시에 그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이들을 역사탐방 자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시대 영·정조 시대 이후 진경산수의 원조인 겸재 정선의 주 활동무대이자 산수화의 대상이 이 인왕산과 백운동천 주변이었고, 조선조 후기에 일어난 중인 위주의 새로운 문화운동인 위향문학(委巷文學) 중 가장 이름난 시단(詩壇)인 옥계시사(玉溪詩社, 또는 송석원시사)가 이 근처에서 운영되었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도 이어져 이 지역을 문학과 미술의 중심지로 지속시키게 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해방 전후로는 경희궁 인근 백범 김구의 경교장을 중심으로 자주적 독립운동의 거점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지역성을 특히 환경계획을 통해 부각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이들 유, 무형의 탐방자원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가치성뿐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성, 활동성까지 포함하면서 대상지의 지역성을 차별화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과 그에 따라 확장된 탐방자원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자면 표 1과 같고, 이를 통한 전반적 연구 진행체계는 그림 5와 같다. 즉, 탐방자원에는 자연경관과 역사경관 등 물리적 환경은 물론 역사적 인물들의 활동과 그 문화적 특징들을 포함하며, 이들 자원을 활용하는 역사탐방로 기본구상에는 역사문화가로적 접근, 조망가로적 접근, 친수 녹도적 접근의 다측면적 접근을 포함하려 한다.

표 1. 탐방자원의 범위와 접근방법

자원의 분류			접근방식	장소적 성격	분석자료	
기존 역사탐방로의 접근방식과 자원	역사적 건조물	궁궐, 사묘, 성곽, 개인주택 등		기존 역사탐방로적 접근	의미성 + 가시성	지자체 발간 역사자료, 고지도, 고문헌 등
	역사적 가로	큰길, 뒷길 등				
본 연구의 접근방식과 자원의 확장	역사적 자연경관 및 조망	조망대상 및 조망점	산경(山景)	조망가로적 접근 + 친수녹도적 접근	가시성 + 활동성	고지도, 고문헌, 옛그림 등
		가로경관	계경(溪景)			
	역사·문화적 활동	정치·사회적 활동	인물, 사상	역사문화가로적 접근	의미성 + 활동성	정치·사회사, 문학사, 미술사 등
		문화·예술적 활동	문학, 미술사조 및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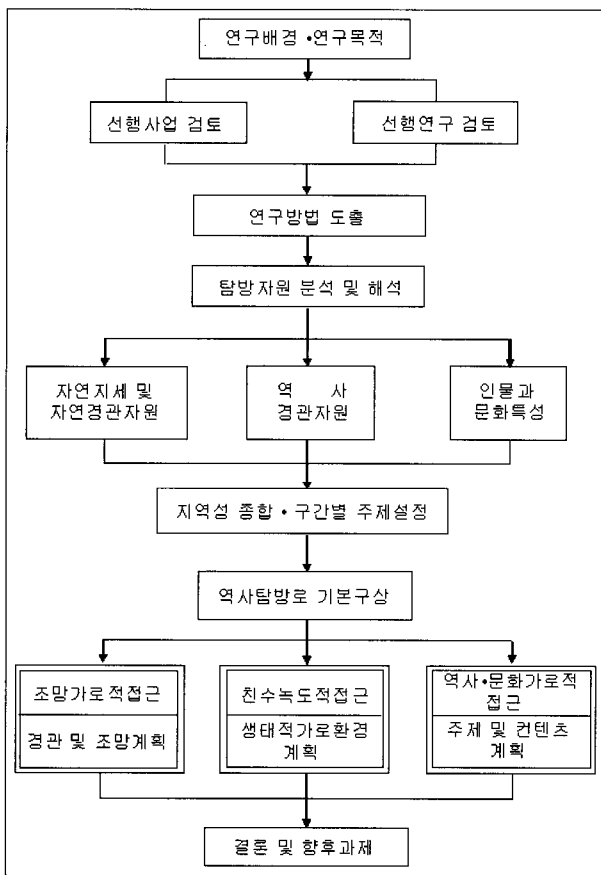


그림 5. 연구의 진행과정

III. 서촌지역의 탐방자원과 지역성 해석

연구대상지는 조선조 당시 서울 성내의 '서촌(西村)' 또는 '우대'라 불리던 지역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즉, 돈의문(서대문)터에서 시작하여 경희궁 북측과 경복궁 서측까지 이르는 이 지역은 현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서대문로 북측에서 세종로 서측 및 북측에 이르는 공간영역을 말한다. “북악산 밑을 북촌, 남산 밑을 남촌, 낙산 근처를 동촌, 서소문 안팎을 서촌이라 하였다. ...또한 '우대'는 서울 성내의 서북쪽 지역, 곧 인왕

산(仁旺山) 가까운 동네이고 '아래대'는 성내의 동대문과 광희문(수구문)계를 이르는 말이다. 우대에는 권력자인 양반들이 살고 아래대에는 예전에 군총(軍摠) 계급의 사람들이 살았다(조풍연, 1989: 298-299).”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의 조선조 당시 지역명을 받아들여 '서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지역은 서울의 전체적인 지형과 문화맥락으로 보아 인왕산 밑에 위치한 인왕산문화권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1. 역사·문화경관

이 지역의 주요한 건축역사자원으로는 당시 서궐로 불렸던 경희궁(慶熙宮, 북궐인 경복궁, 동궐인 창덕궁과 비교해서), 칠궁(七宮) 등의 궁궐과 정도초에 주례(周禮)의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조성된 사직단(社稷壇)이 있다. 또한, 일제 때 철거된 돈의문(서대문)은 그 복원이 최근 문화재청의 사업으로 채택되어 조만간 이곳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중 사직단은 종묘와 함께 조선 개국초부터 양대 국가기강성지(國家基幹聖地)의 하나로 조성되었던 곳이다.

이 지역에는 광해군대에 인왕산왕기설과 관련되어 조성되었던 '경희궁(慶熙宮)' 이하 많은 이궁, 별궁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칠궁이라 불렸던 육상궁(毓祥宮)과 최근 부분복원된 경희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제시대 이후 철거되어 현재까지 타 용도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을 둘러싼 인왕산의 정상 능선부에는 조선 건국초에 조성되었던 '한양성곽(漢陽城郭)'이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 복원되어 있다.

근대문화유적으로는 대상지 남측 경계인 강북삼성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백범 김구선생의 해방 이후 집무실이었던 '경교장(京橋莊)'이 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근대 초기의 대표적 문화예술인들의 거처였던 '홍난파 가옥'이 있으며, 사직공원 너머 구 백운동천 주변에는 '이상(李箱)가옥', '박노수 가옥' 등이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다. 여타의 문화유적들을 단지 터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대표적 유적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유적별 위치도(그림 6 참조)와 함께 목록·개요·현

표 2. 서촌 역사 탐방로의 역사문화유적 현황

도면상번호	문화재명	문화재 분류	현주소	현상태
1	경회궁	사적	사직동 2-1	유적 있음
2	돈의문	-	신문로2가 108	표석 있음
3	경교장(김구 주석 서거한 곳)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평동 108-1	유적 있음
4	경기감영 터	-	평동 164(적십자간호대학)	표석 있음
5	홍난파 가옥	등록문화재	홍파동 2-16	유적 있음
6	권을 집터(생가)	-	행촌동 1-113	표석 있음
7	대한매일신보 사옥	-	행촌동 1-18	표석 있음
8	서울성곽	사적	사직동 산1 일대	유적 있음
9	단군성전	-	사직동 48(사직공원)	유적 있음
10	서울 사직단	사적	사직동 48(사직공원)	유적 있음
11	홍중문가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체부동 158	유적 있음
12	추사 김정희 옛집	-	통의동 7	멸실 유적
13	이상 가옥	등록문화재	통인동 154-10	유적 있음
14	세종대왕 집터(생가)	-	통인동 156	멸실 유적
15	필운대(이항복 집터)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필운동 산1-2(베화여고)	유적 있음
16	황학정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사직동 산1-1	유적 있음
17	인왕산 국사당	서울특별시 중요민속자료	무악동 산2-12	유적 있음
18	선바위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무악동 산3-4	유적 있음
19	이중섭 가옥	등록문화재	누상동 166-10	유적 있음
20	박노수 가옥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옥인동 168-2	유적 있음
21	겸재 정선 집터(살던 곳)	-	옥인동 20 일대	멸실 유적
22	선회궁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신교동 1-1(서울농학교)	유적 있음
23	경우궁 터	-	신교동 1-4(서울맹학교)	멸실 유적
24	겸재 정선 외가	-	청운동 123(청운초등학교)	멸실 유적
25	송강 정철 선생 집터	-	청운동 123(청운초등학교)	표석 있음
26	김상헌 집터	-	청운동 94-2	표석 있음
27	겸재 정선 생가(태어난 곳)	-	청운동 89(경복고교)	멸실 유적
28	김상응 집터	-	청운동 52-8	표석 있음
29	청송당 터	-	청운동 89	표석 있음
30	육상궁	사적 149호	궁정동 1	유적 있음
31	송석원 터	-	옥인동 47번지 일대	멸실 유적

자료: 종로구청, 2003; 김미선 외, 2004; 영진문화사, 2004 참조, 필자 작성

유교계를 상징하는 정도전은 백악(북악)을 주산으로 주장하였다가 논란 끝에 백악을 주산으로 결정하였다는 설화가 있다. 그만큼 인왕산은 왕도(王都)다운 품격을 갖춘 산이었다.³⁾ 또한 광해군 때에는 인왕산 아래 왕기(王氣)가 돈다는 말에 따라 그 일대의 민가를 모두 철거하고 경덕[慶德(熙)]·인경(仁慶)·

자수(慈壽) 등 다수의 궁궐을 짓는 공사까지 일으킨 바도 있다.

인왕산 상봉은 대부분 암벽이고 험준하지만 그 동쪽 경사면은 산수 자연이 아름다운 승지로 유명하다. 현 사직공원에서 북쪽으로 등성이를 넘어가면 필운동의 필운대가 있고 필운대



그림 7. 서촌의 역사문화유적 사진



그림 8. 인왕산과 서울성곽

언덕에서 다시 북쪽으로 내려가면 산록의 골짜기가 깊숙한데 과거에는 여기에 인왕동·옥류동·수성동 등의 산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앞으로 청풍계(淸風溪), 송석원(松石園) 등 명소가 이어져 있었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0).

2) 백운동천(白雲洞川)

백운동천은 인왕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로 청계천의 상류 지천에 해당된다. 즉, 조선시대 청계천 최상류부의 지명이 백운동이었으며, 이 물줄기가 백운동을 감싸고 돌아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백운동천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물길은 오늘날의 통인동에 이르러 옥류동(현 옥인동) 방향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과 만나서 청계천 본류를 형성하게 된다. ... 지금의 청운초등학교 뒷골목 안쪽의 깊은 골짜기인 백운동 계곡은 조선시대 도성 안의 5대 경승의 하나로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더위를 식혔던 곳으로 유명하다. 상류로부터 시작하여 삼청동천과 합류되기 이전까지 백운동천 위에 놓여진 다리는 자수궁교(慈壽宮橋)와 금청교(禁淸橋)를 포함하여 모두 11개에 이른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0: 227-231).

3) 겸재(謙齋)⁴⁾의 진경산수(眞景山水)로 본 대상지 경관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은 서촌의 옥인동과 청운동 일대에 살면서 이곳의 경승지들을 대상으로 그의 진경산수화를 많

이 그려내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인왕제색도(仁王鱗色圖)’는 그의 집 근처에서 보이는 인왕산의 전경을 박진감 넘치게 그려낸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가 서촌지역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바라보이는 서울의 승경들을 그린 여러 산수화들을 현 시점에서 조망점과 조망방향을 추정해 본다면 그림 12, 13, 14와 같다.

여기서 그림 12의 조망점 ①과 ④는 각기 백운동천과 옥류동천의 발원지인데, 현재는 각기 주택지로 개발되어 원상을 추측하기 힘들다. 조망점 ②, ③, ⑤는 겸재의 거처(인곡정사)로 추정되는 옥인동 20번지 일대에서 각각 남산(②)과 자기집(③) 그리고 인왕산(⑤)을 바라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망점들이다. 그러나 현재 이 주변의 지역들은 5층 내외의 다세대 주택들로 들어차 있어 원래의 조망지점에서 과거와 같은 조망이 어렵다. 이보다는 같은 조망축선상에 위치한 인근의 조망지점인 ㉠ 지점에서 바라본 인왕산의 조망이 ‘인왕제색도’의 경관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 지점에서 바라본 남산의 조망은 ‘장안연우(長安煙雨)’에서의 남산의 조망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인물과 문화특성

조선조 당시에는 백운동천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특유의 서촌문화가 있었다. 이곳은 조선조 후기에 당시 서인으로 분류되던 율곡학과 사림들과 중인들의 중심 거주지였다. 이들 서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일종의 시단인 ‘백악사단(白岳詞壇)’을 만들어 활동하였고, 특히 서인계열이었던 겸재 정선과 송강 정철, 추사 김정희의 거처가 이곳에 있어서 진경산수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경희궁 인근은 개화기와 일제시대로 이어지는 근대태동기에 독립운동과 신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던 곳이다. 독립운동의 한 거점이었던 대한매일신보 사옥터와 해방후 민족주의 계열의 활동거점이었던 김구의 경교장(京橋莊)이 이곳에 있다. 이와 더불어 근대음악과 미술의 거목이었던 홍난파, 이상, 이중섭, 박노수 등의 거처도 서촌 지역에 현존하거나 터만 남아 있다. 이들과 관련된 지역의 문화를 주제별로 분류하



그림 9. 일제시대 서촌 일대와 백운동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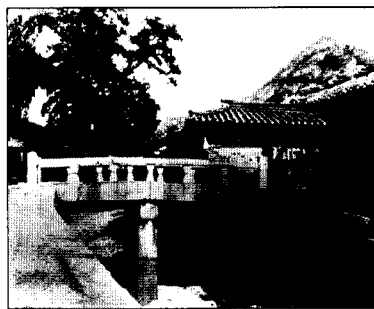


그림 10. 백운동천 위의 자수궁교



그림 11. 백운동천의 지천(옥류동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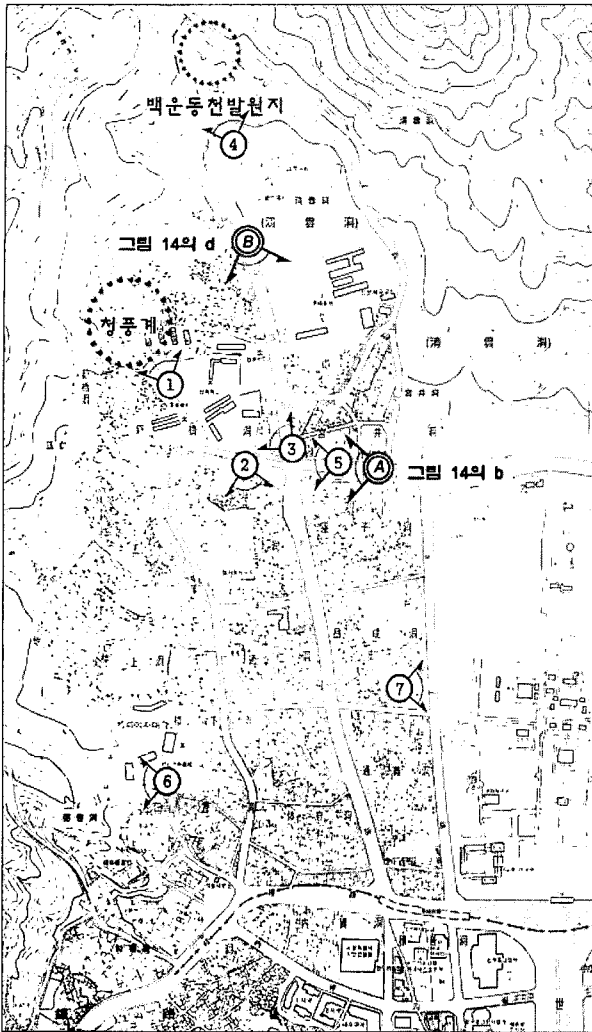


그림 12. 결재 진경산수화의 추정 시점

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율곡학과와 서인(西人)의 근거지

율곡학파의 중심인물이었던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와 그의 평생지기였던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 그리고 우계 성혼(牛溪 成渾, 1535-1598), 백록 신응시(白鹿 辛應時, 1532-1585) 등이 모두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인 지금의 궁정동, 효자동, 청운동, 신교동, 옥인동 일대의 순화방에서 살아 왔다(이 곳의 별칭인 서촌을 이유로 그들을 서인이라 칭함). 그들은 정철의 가시문학과 창강 조숙(滄江 趙涑, 1595-1668)의 초기 진경산수화에 이은 결재 정선의 본격 진경산수화 등 조선 고유색을 표현해 내려는 전통을 키워왔다(최완수, 1993).

2) 진경문화(眞景文化)의 발상지

인왕산 옥류동(玉流洞)은 조선 초기부터 빼어난 풍광으로 문인들이 즐겨 노닐던 곳이다. 장동 김씨인 선원 김상용(仙源 金



그림 13. 정선의 시점에 따른 진경산수화들

尙容, 1561-1637)의 후손들은 인왕산의 또 다른 개울 청풍계(淸風溪)를 소유하였고, 그 아우 김상헌(金尙憲)의 후손들은 옥류동을 차지하였다. 청풍계는 인왕산 동쪽 기슭의 북쪽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일대의 골짜기를 일컫는 이름이다. 선원과 그 아우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 형제가 율곡의 학통을 이어 이곳 인왕산과 북악산 아래 뿌리를 내린 결과, 그들의 증손자 세대에 이르러서는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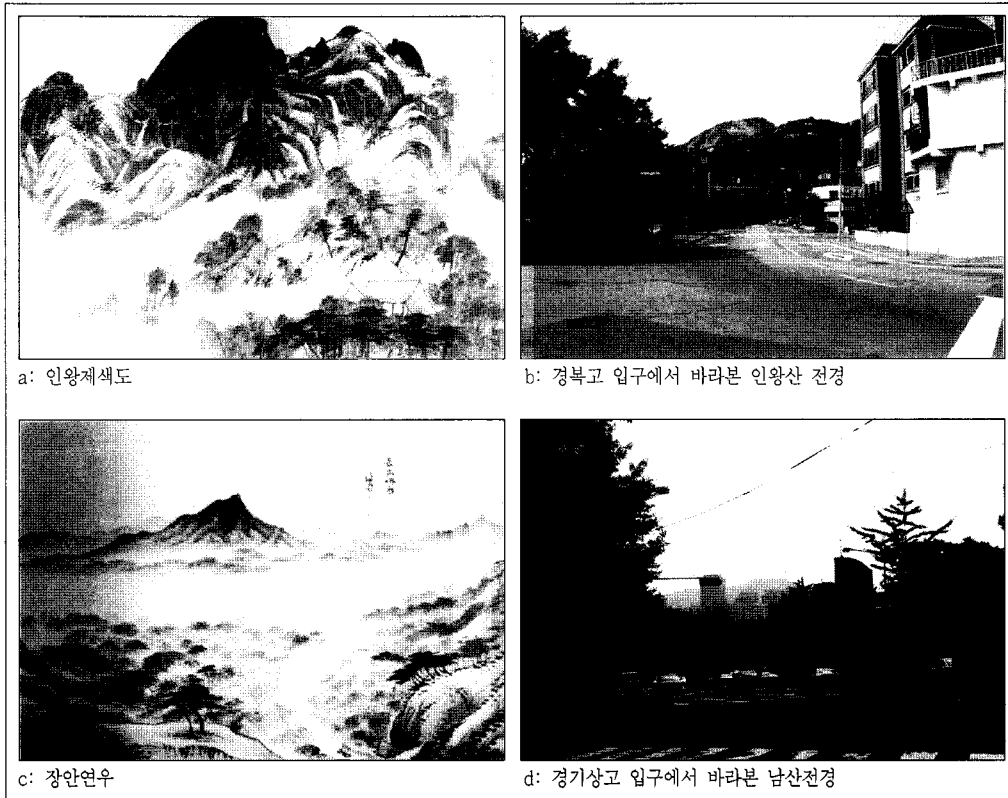


그림 14. 겸재 정선의 시점에 따른 현재의 조망경관

1653-1722) 등 진경문화의 선두주자들을 배출하게 되고, 그들의 문하에서 진경문화의 주역인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 진경산수화 완성)과 사친 이병연(徙川 李秉淵: 진경시 완성) 등을 배출하게 되었다. 겸재는 장동 김씨의 외손으로 현 청운동에서 태어나 인왕산 기슭인 현 옥인동에서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이 주변의 경승지와 이곳에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진경산수의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유명한 '인왕제색도(仁旺霽色圖)'는 옥인동의 '인곡유거(仁谷幽居: 겸재 말년의 거처)'에서 바라본 비개인 인왕산을 그린 말년의 명작이다(최완수, 앞책).

3) 위항문학(委巷文學)⁵⁾의 근거지

후일 옥류동은 삼청동(三清洞)과 함께 중인 위주의 문사들인 위항인(委巷人)들의 사회처로도 크게 각광을 받았다. 위항시인의 주류를 이루는 경아전(京衙前)들이 집중적으로 인왕산 자락 '우대'에 살았기 때문이다. 최윤창이 같은 위항시인 김시모의 만사에서 "동촌과 서촌에 시단이 있어, 30년 달빛 아래서 술에 취해 재주를 다투었다"라 하였으니 18세기를 전후하여 동촌 외에 서촌, 곧 인왕산 자락에서도 위항인들의 사회가 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종복, 2006: 463-467). 영정조를 중심으로 한 위항문학은 당시 유행했던 실학과 더불어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로의 진입을 시사하는 사회변화의 한 예로, 당시 이곳

에 기술직의 신분으로서 개화기 중국문물에 접촉이 쉬웠던 중인들이 서촌에 많이 살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조선 후기 위항인들의 예술활동의 영역은 대단히 넓다. 특히 진경시대와 맞물려 그들이 개입한 예술활동은 음악, 회화, 글씨, 국문학(시조, 판소리 등), 한문학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위항문학운동의 실제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천수경(千壽慶)은 현재의 옥인동 근처인 옥계(玉溪)로 이사와 소나무와 바윗돌 아래 초가집을 짓고 '송석원(松石園)'이라고 이름붙인 뒤부터 위항문학의 대표적 모임인 '옥계시사(玉溪詩社)'는 송석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817년에 추사 김정희가 '송석원' 세 글자를 써주었고 봄, 가을에는 수백명이 모여 시를 지으며 놀았는데, 이를 백전이라 하였다(그림 15 참조). 이로써 인왕산 언저리는 시사(詩社)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19세기 전반에 이르러 서원시사(西園詩社), 비연시사(斐然詩社), 직하시사(稷下詩社) 등의 시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허경진, 1997). 이러한 내력을 가진 송석원 터에는 후일 구한말 대표적 친일관료였던 윤덕영(尹德榮, 1873-?)의 거대한 의양식(擬洋式) 공택이 신축되었다가 1970년 초에 화재로 사라지게 되는 등 비운의 역사를 맞게 되었다.

4) 독립 및 건국운동의 기념지

상해임시정부주석을 마치고 1945년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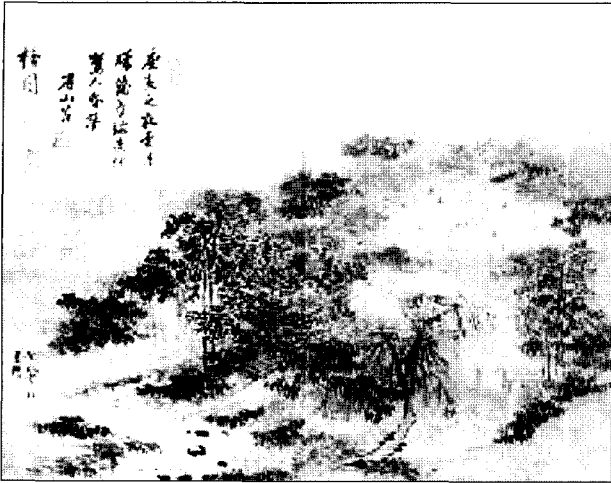


그림 15. 김홍도의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圖)

백범 김구(白凡 金九, 1876-1949) 선생은 경희궁 옆의 경교장(京橋莊)에서 집무하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민족 스스로의 통일독립 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선생은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다가, 1949년 6월 26일 바로 이곳에서 통일운동을 저해하려는 세력(안두회)에 의해 암살 당하였다.

5) 근대문예의 거점지

본 지역은 조선 후기의 자주적인 문예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근대음악, 미술, 문학 도입기의 핵심적 선구자들이 태어나거나 살았다는 지역특성을 갖는다. 근대음악의 흥남파, 근대미술의 이상범들이 이 지역에서 살았고 현대 한국화의 중진 박노수는 현재도 살고 있다. 또한, 근대문학의 기념비적 인물 이상(李箱) 김해경이 짧은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 또한 이곳이다. 이들의 선구자적 활동은 특히 조선조로부터 유명했던 이 지역의 수려한 풍광과 문예전통, 그리고 근대적 도심과의 근접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보인다. 각 문예가들의 활동 개요는 주 6에 정리하였다.

IV. 역사탐방로의 조성방안

1. 계획의 주방향

1) 대상지의 지역성과 가로구간별 주제설정

앞서 서술되었던 문화특성을 토대로 전체 지역의 일관된 문화특성을 말한다면 '자주적 문화의 거점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정도 초기의 주산 논쟁에서 시작하여 조선 후기의 조선성리학파와 진경문화는 물론이고 말기의 위항문학과 실학 등 주제적 근대운동, 그리고 일제시대와 건국 초기의 근대적 문예활동과 자주적 정치운동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관된 주제의 성격은 자주적 문화로 볼 수 있다.

대상지의 전체 지역은 중앙에 위치하는 사직단을 중심으로 하여 남측 구역과 북측 구역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중 경희궁 측의 제1구간은 서울 성곽이 입지한 능선 지형의 지역이며, 백운동천을 중심으로 하는 제2구간은 옛 계류 주변의 지역으로 지형적으로도 대조적인 성격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양분되는 전체 지역을 관류하는 주 보행통로를 찾아낸 다음 구간별 주제의 부각을 통해 탐방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려 한다. 계획의 단계로 보아서는 먼저 명칭부여(naming)를 통한 구간별 주제의 표현과 그에 맞는 경관적 연출의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상지 전체의 포괄적 주제인 자주적 문화는 이러한 양대 구간으로 나누어지면서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역사유적과 그에 관련된 인물 및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간별 주제를 설정하였다. 이런 각도에서 대상지의 남측 부분인 '경희궁-사직단' 구간의 대주제로는 '백범 김구와 자주정신'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 주제는 일제 말기에서 국토 분단에 이르는 시기에 벌여졌던 독립운동, 반탁통일운동 및 근대 문예운동 일부를 포함한다. 대상지 북측 부분인 백운동천 주변 구간의 주제로는 '겸재정선과 진경산수'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 주제에는 율곡학파의 자주적 문화지향과 그 영향하에 발생, 전개되어온 진경문화, 위항문학 그리고 근대문예운동 등 혁신

표 3. 탐방로 구간별 주제와 루트

구간별 주제·명칭	탐방루트(복원포함)	주제표현
· 전체구간 -주제: 서촌의 경관문화 -명칭: '서촌역사탐방로'	서울역사박물관→경희궁→돈의문(복원)→경교장→흥남파집→대한매일신보사(터)→서울성곽→단군성전	- 경교장 주변부 역사공원화 -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역사문화유산 표현
· 1구간 - 주제: 백범 김구와 자주독립 - 명칭: '백범길' - 세부구간: '서울 성곽 세로'	사직단→홍중문집→백운동천(복원)→추사집(터)→세종대왕탄생지(터)→겸재집(복원)→청풍계(복원)→송석원(복원)→이중섭집→박노수집→이상범집→이상집	- 백운동천 복원 - 겸재집 및 청풍계, 송석원의 복원과 공원화 - 진경산수 대상경관 조망 강조
· 2구간 - 주제: 겸재 정선과 진경산수 - 명칭: '진경산수길' - 세부구간: '추사세로', '송석원 세로', '근대화 세로', '이상 세로'		

적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한다. 각 구간별 길의 명칭과 탐방 루트, 주제 표현의 구체적인 방향은 표 3과 같다.

2) 역사문화가로 + 조망가로 + 친수녹도 만들기

본 연구의 출발이 청계천 원류의 탐색과 복원에 있었던 것과 같이, 서촌탐방로의 대표적 환경자원은 지금은 복개되어 있는 백운동천이다. 즉, 백운동천의 복원을 전제로 하여 친수녹도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이 환경을 겸재 진경산수의 조망자원과 결합시키는 것을 물리적 계획의 주된 방향으로 삼았다.

백운동천 존재의 객관적 근거는 무엇보다도 근대 초기에 제작된 지도와 일부 현장사진들이다. 따라서 본 계획구상에서는 고지도와 근대지도를 비교·분석하여 하천 복개구간 및 옛길 등을 찾아내어 수경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복원의 주 방향은 생태복원과 경관복원, 문화복원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특히 겸재가 진경산수의 경관을 관찰하고 그렸던 주조망점들을 찾아내어 겸재작품 속의 경관과 현재경관을 비교 관찰할 수 있는 '진경산수 조망 소광장'들을 그의 활동영역 곳곳에 조성하기로 하였다(표 4 참조).

(1) 역사·문화복원

대상지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 중에는 백범 김구와 같은 역사적 지도자도 있으나 그보다는 문화예술, 특히, 미술과 관련된 인물이 많으므로 그들의 예술세계를 기념하고 연구하는 기념 문화공간들을 마련하고, 그들의 그림이나 시를 경관의 구성요소로 활용하는 문화적 경관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대상지 특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경관복원

특히, 그 상류부인 옥인동과 청운동 부근은 조선조의 서울 장안에서 가장 이름난 승경지에 속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들 경관자원을 강조할 수 있는 조망점 조성(viewing point, photo island)과 조망가로(scenic walk)의 경관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이 조망점들의 선정은 겸재의 진경산수의 주시점들을 중심으로 한다.

로 한다.

(3) 수생태복원

본 대상지 내 자하문로는 원래 청계천의 원류를 복개한 것으로 이의 복원을 통해 청계천 복원의 생태적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백운동천 발원지인 청풍계의 경관적 복원과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저류지의 조성 등이 필요한데 다행히 상류지역으로 공립학교들이 여럿 있어 이들 운동장의 지하공간 등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2. 탐방로의 기본경로와 조성방안

역사탐방로 전구간의 종합적, 체계적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부지특정적(site specific), 수복형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경관사업에 의한 공공친수녹도 및 보행공간 조성, 조망축 보호와 이에 따르는 건축물 높이 및 형태유도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조정과 건축계획의 내용은 후속연구로 돌리고 여기서는 기본방향만 제시한다(그림 15 참조).

1) 출발점과 안내시스템

- 전체 출발점: 경희궁 옆의 서울역사박물관 구내에 서울시 전체의 '서울역사탐방로'의 종합안내소를 설치한다.
- 1구간(경희궁길 구간)의 출발점 및 안내소: 백범기념관(경교장 내)에 조성한다.
- 2구간(자하문길 구간)의 출발점 및 안내소: 자하문로 입구부근에 별도 조성한다.

2) 교통처리

- 탐방의 기본 교통수단은 보행과 자전거이다. 1구간은 경사가 심해 도보 위주로 하고, 2구간은 도보와 자전거를 병행하게 한다.
- 탐방로는 기본적으로 보차 공존도로의 형태로 하고 보도 부분은 보행친화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2구간의 백운동천

표 4. 서촌 역사탐방로 종합적 접근방법과 계획과제

접근방법	구분		내용	수반되는 계획과제
	목적			
역사·문화가로적 접근	- 정치지도자, 문화예술인 거처의 보전, 복원, 강조		겸재집, 추사집 복원 + 근대미술, 문학인들의 거처 표석 및 환경 정비	- 관련 기념관 및 문화시설 증설
조망가로적 접근	- 조망경관의 보전, 복원, 강조		겸재 진경산수의 조망점 현지 확인 + 조망점의 포켓 공원화	- 조망권역 보전을 위한 경관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
친수녹도적 접근	- 수경의 복원 - 수생태계의 복원 - 보행환경의 개선		백운동천의 복원 + 보행친수녹도의 조성 + 청풍계 복원 및 공원화	- 차도 축소의 교통공학적 검토 - 유지수 확보를 위한 저류조 조성 - 백운동천 수리 검토와 청계천 연결 - 재개발과 연계한 청풍계 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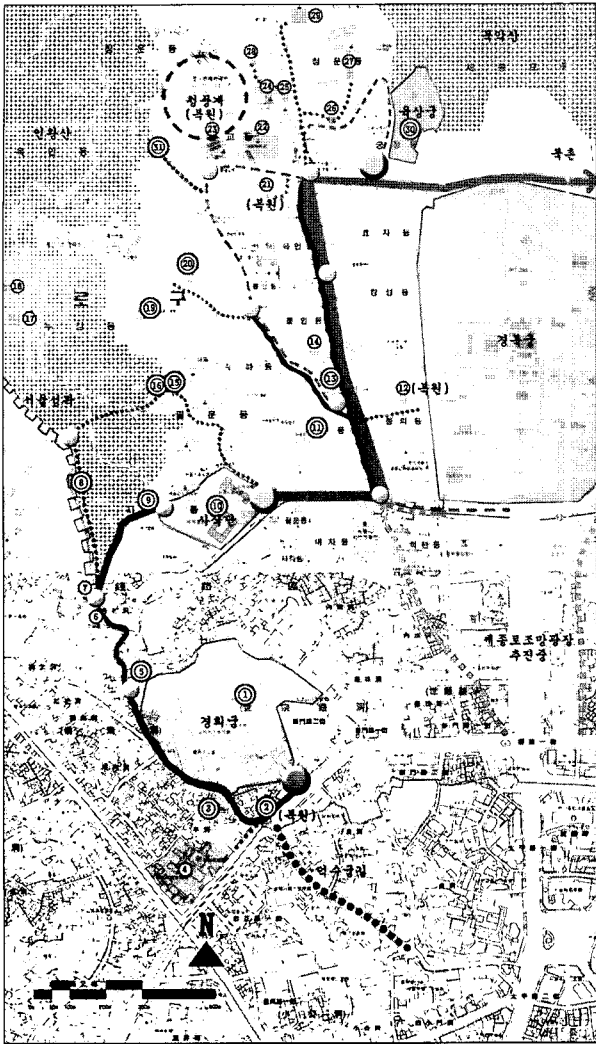


그림 16. 서촌 역사·문화탐방로 기본구상

- 범례:
 - 주탐방로 (thick solid line)
 - 부탐방로 (dashed line)
 - 연결세로 (dotted line)
 - 조망광장 및 안내소 (solid line with arrow)
 - 멸실문화유적(부분복원) (circle with dot)
 - 청계천지류(부분복원) (dotted line)
 - 출발광장 및 안내소 (circle with dot)
 - 현존문화유적 (circle)
 - 백운동천(복원) (thick solid line)
 - 기존역사탐방로(덕수궁길) (dotted line)

복개구간은 기존차도의 차선을 약 2개 차선 정도 줄여서 지천복원과 함께 보도를 확장한다.

- 세로(細路)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조정하여 보도 여유폭을 넓히도록 하며, 가능하다면 주차는 담장허물기와 병행하여 대지내 주차로 유도하고, 조업주차는 시간제로 유도하여 탐방로를 보행중심으로 재조성한다(서울시 그린파크사업 사례 참조).

3) 유적복원 및 환경정비

- 돈의문 복원: 돈의문 복원은 문화재청의 예정사업이므로 그에 따르되 주변에 보행광장을 설치하여 기존의 덕수궁

길 역사탐방로와 제안된 서촌 역사탐방로를 연결시킨다.

- 경교장 주변 공원화: 경교장 주변부를 역사공원화하여 장소성을 강화한다.
- 청풍계 복원 및 공원화: 청풍계 주변은 현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개발 시행시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하여 청풍계 원형을 복원하고 백운동천 수경의 클라이막스가 되게 한다.
- 송석원 복원 및 위향문학회 조성: 송석원의 문화사적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정원복원과 위향문학회 조성을 추진한다.

4) 경관 및 문화시설 조성

(1) 경관조성

- 1구간의 경사지 포장은 요철을 줄 수 있는 박석포장을 장려하며 경계부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 2구간의 지하문로 부분은 교통량이 많지 않으므로 약 2개 차선을 줄이고 백운동천의 원형을 복원한다.
- 대상지 인근의 경관들은 진경산수화의 주 대상으로 잠재 집터를 중심으로 해당 조망지점에 조망포켓 겸 포토아일랜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해당 산수화를 석물이나 동판에 복제설치하여 원경관과 진경산수의 경관을 비교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 입구부나 가각부, 교차지점 등에 소공원을 설치하여 안내 시설과 수경휴게공간을 조성한다.

(2) 문화시설 조성

최근의 참여형 관광추세와 대상지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의의로 보아 향후 방문객들은 단순한 장소탐방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문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구와 체험을 위한 시설공간을 원하게 될 것이다. 즉, 서촌 자체의 지역성을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여가활동과 겸해 문화적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예시하는 범주의 공공과 민간의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 장려한다.

- 기념문화시설 건립추진: 백범기념관, 사직박물관, 진경문화기념관, 위향문학회, 이상문학기념관, 근대화관 등
- 문화친화적인 어메니티 시설용도 장려: 화랑, 고미술점, 문화적 분위기의 토속 찻집이나 음식점

3. 관리운영

- 각 탐방유적지가 사유지일 경우 휴일에 한정하여 탐방객에 개방을 유도한다. 평일에는 투시형 담장으로 개조하여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장사진을 밖에 부착하여 참조자료를 제공한다.

- 주민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근 주민들의 교육을 통해 자생적 안내자원 봉사자 조직을 육성한다.
- 각 안내소에서는 관련 소책자와 기념품을 판매하게 하고 거주자에 판매권한을 부여한다.
- 시각적 안내시스템은 사인보드와 차별화된 바닥포장을 기본으로 하고(보스톤의 프리덤트레일 참조), 구두 안내시스템은 훈련된 안내자가 전담하도록 한다.

V.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서울이 대표적인 풍수의 도시였다는 사실은 과거의 지도에서 보이는 수많은 산과 능선 그리고 계류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계류들은 경관자원일 뿐 아니라 특정의 문화의 공동체를 키워내는 생활문화자원이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여야 한다. 지금은 땅 밑에서 숨죽이고 있는 구도성 내의 계류들을 점진적으로 복원시키는 것과 함께 주변지역의 독특한 생활상과 지역성을 찾아내어 역사탐방로의 주제로 부각시켜 나간다면, 서울의 장소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기존의 정동(덕수궁) 역사탐방로와 연속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사업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남쪽으로는 청계천, 동쪽으로는 북촌 중학천 길과도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개방되기 시작한 도성 북문과 북악산의 성곽산책로와도 이어지게 한다면 도성 전체를 관류하는 '서울문화·역사탐방로'로 완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정책제안형 연구이고, 특히, 서울 서촌 지역의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 환경조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후속단계의 상세한 기술적 검토는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앞으로 이를 사업화하는 시행단계에서는 당연히 서촌 고유의 경관조성을 위한 보다 상세한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세부 설계안의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지천 복원에 따르는 교통처리의 문제와 유지수 확보문제, 친수녹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생태학적 문제의 검토와 기준 마련 등의 기술적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대상지의 여건을 볼 때,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와 지원행정도 따라가야 하리라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도심재생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사적단 등 중요 문화재 주변의 대규모 고층 고밀도 개발은 차

제에 국가차원에서 지역의 경관적, 문화적 특징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주 1. 본 연구는 2006년 8월 일본 나가사키의 한중일 조정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본인의 예비 논문(Kim, 2006)과 이후 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된 송지선의 석사논문(2007)을 바탕으로 연구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주 2.

주 2-1. 관련사업

- 1) 역사탐방로 사업
 - 덕수궁 거리 조성사업(1997)
 - 인사동 거리 조성사업(2000)
 - 돈화문 거리 조성사업(2001)
- 2) 도시하천 복원사업
 - 제주시 산지천 복원사업(1997-2002)
 - 청계천 복원사업(2002-2005)
 - 성북천 복원사업(2002-2007)

주 2-2. 관련연구

- ① 역사적 변천을 통해서 본 서울시 지천의 현대적 활용방안(박문호 외, 1996)
- ② 보행환경기본계획(시정연, 2002)
- ③ 성북천 복원사업의 효과평가연구(시정연, 2004)
- ④ 도시내 하천의 바람직한 계획방향(김성환, 2006)
- ⑤ 북개하천의 복원타당성 조사(김갑수, 2006)

주 3. 이러한 무학과 정도전의 주산논쟁의 설화는 실은 '天子南面'의 주례적 도형성과 지형경관을 우선시하는 풍수적 도형성간의 우위경쟁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도시경관은 도시 입지의 큰 틀은 풍수의 원칙을 따랐으나 도시내 주요 정치 시설배치의 원칙은 중국 전래의 천자남면의 주례적 원칙을 따른 절충형의 것으로 귀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김한배, 1998: 111-113).

주 4. 정선(鄭澈, 1676-1759)

정선은 본관 광주(光州), 자 원백(元伯), 호 겸재(謙齋)·난곡(蘭谷)으로 숙종 2년(1676)년 1월 3일 아버지 시익(時翊, 1638-1689)과 어머니 밀양 박씨(1644-1735) 사이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겸재는 창의적인 필체로 실경 위주의 인상깊은 경치를 화폭에 옮겨 진경산수화를 완성하였다. 주요 작품들은 그의 거처가 있던 인왕산 근처와 서울 근교, 금강산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 5. 조선 후기 서울을 중심으로 중인 이하 계층이 주도한 한문학 활동으로 '여항문학(閭巷文學)'이라고도 한다. 양반 사대부가 아닌 중인 이하 하급계층을 위향인이라고 지칭한데 따른다. 18세기에 본격화되었는데 신분상승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대표적 인물인 천수경은 그의 집 송석원을 중심으로 옥계시사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후일 개화세력으로도 연결된다(허경진 1997, 이종목 2006을 참조 요약).

주 6. 대상지에서 살았던 저명 근대문예인

작가	주요 활동
홍난파(1898-1941): 근대음악가	일본에 유학하여 1918년 우에노[上野] 음악학교와 1925년 도쿄고등음악학원에서 공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음악가이다. 1925년 일제시 한민족의 한을 노래한 <봉선화>의 작곡자이다. 1929년 <조선동요 100곡집> 상권을 연악회를 통해 간행했다.
이중섭(1916-1956): 근대 서양화가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가의 한 사람이다. 호는 대향(大鄕). 중진후 서울 누상동에 거주하면서 국방부-대한미술협회(대한미협) 공동주최의 대한미협전에 출품했다. 1955년에는 미도파 화랑과 대구의 미국공보원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작가	주요 활동
이상범(1897-1972): 근대 한국화가	호는 청전(靑田)이다. 독자적 세계를 개척, 향토 색 짙은 작품들을 그려냈다. 1929년-1972년(졸년) 까지 43년 동안 누하동에서 즐곳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 및 제자양성에 힘썼다.
박노수(1927-?): 근대 한국화가	호는 남정(藍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1983년부터 예술원 회원으로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옥인동에 거주하면서 동양적 자연관에 입각하여 관념적인 이상향을 추구하는 작품경향을 보여 왔다.
이상(1910-1937): 근대문학가	1910년 종로구 사직동에서 태어났다. 이후 백부의 집인 통인동 154번지 일대에 거주하면서 당시 한국문단에 최초로 '오감도' 등 본격적인 모더니즘 시를 소개하였다.

인용문헌

1. 김갑수(2006) 북개하천의 복원타당성 조사. Urban Review 4/1. 한국도시설계학회.
2. 김미선 외(2004) 서울시 종로구 소멸문화유적의 인식제고 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61-69.
3. 김성환(2006) 도시내 하천의 바람직한 계획방향. Urban Review 4/1. 한국도시설계학회.

4. 김한배(1998) 우리도시의 얼굴찾기. 서울. 태림문화사.
5. 박문호 외(1996) 역사적 변천을 통해서 본 서울시 지천의 현대적 활용방안. 서울학연구 제7호.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6. 서울시(1994) 역사문화탐방로조성계획. 시정개발연구원.
7. 서울시(1998) 조망가로조성사업계획.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8. 서울시(1999, 2003, 2004) 도심부관리기본계획. 시정개발연구원.
9. 서울시(2002) 제2차 서울특별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시정개발연구원.
10.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코플랜연구소(2006) 도쿄 예고가와구 환경친화적인 도시 및 공원녹지조성 워크숍(자료집).
11. 서울시사편찬위원회(2000) 서울600년사.
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 성북천 복원사업의 효과평가연구 정책토론회(자료집).
13. 송지선(2007) 청계천 상류지천유역의 역사탐방로 계획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14. 영진문화사(2004) 서울지번호.
15. 유본예(1890) 한경지략(漢京識略). 권태익 역. 탐구당. 1981.
16. 이종묵(2006) 조선의 문화공간. 휴머니스트.
17. 정명진(1994) 서울시 도심부 역사탐방로 계획.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8. 조선총독부(1904, 1921, 1934) 서울 측량지도.
19. 조풍연(1989) 서울잡학사전. 정동출판사.
20. 종로구청(2003) 종로의 문화재.
21. 최완수(1993)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범우사.
22. 허경진(1997)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23. Kim, Han Bai(2006) Revitalization of the Cultural Environment through the Restoration of the Historic Stream System: A Proposal. The 9th International Landscape Architectural Symposium of Japan Proceeding, China and Korea, JILA, CHILA and KILA.
24. Royal Asiatic Society(1902) 서울고지도.

원 고 집 수: 2007년 6월 1일
 최종 수정본 접수: 2007년 7월 31일
 인 의 명 심 사 필